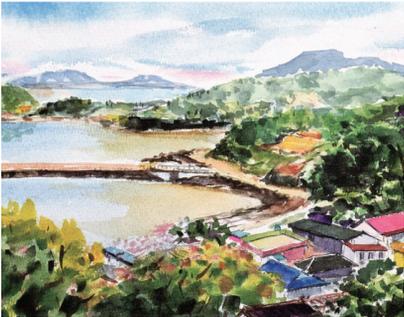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달려온 시간들

광주사생회 40주년 기념, 2일까지 무등갤러리서 회원전
매월 1회 야외 스케치 창작활동...45명 회원들 작품 전시



강성희작 '다시 가고 싶은 그곳'



김영주 작 '적금도의 붉'

불혹(不惑)이라는 나이는 말 그대로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논어 '위정편' (爲政篇)의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40이 되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넓게는 그만큼 책임과 성숙을 갖춘다는 뜻이다.

그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단체도 마찬가지다. 단체가 꾸러지고 40년이 흘렀다는 것은 정체성, 추구하는 가치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일 터다.

광주사생회(회장 김영주)가 40주년 기념전을 연다.

지난 1984년 창립된 광주사생회는 그동안 지역 화가들이 중심이 돼 활동을 이어왔다. 전업 작가 외에도 전공자, 비전공자 등 회원 구성도 다채롭다. 그림을 사랑하는 이들이 야외 스케치를 매개로 창작활동도 하고 우의도 다진다.

창립 첫 해 8월 거문도서 첫 단체 스케치전을 나간 후 1986년 가톨릭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주년 기념전을 갖게 된 것이다.

무등갤러리에서 오는 2일까지 진행 중인 '제40주년 광주사생회전'은 지난 40년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40년을 맞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사생회가 오늘까지 활발하게 활동



광주사생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는 2일까지 동구 무등갤러리에서 회원전을 진행 중이다.

을 펼쳐 줄 수 있었던 것은 선배 화가들 비롯해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요즘은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추상미술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그림에도 사생회는 순수 예술, 자연을 모티브로 작품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타 단체와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풍경을 그리다보니 회원들 관계도 돈독해지고 창작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우리 사생회는 젊은이들이 많아 앞으로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생회는 매월 1회 버스를 대절해 야외 스케치를 나간다. 또한 지역마다 꾸러진 사생회가 연대해 페스티벌도 연다. 현재 부산을 제외하고 6대 광역시마다 조직된 사생회들은 매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축제를 열었고 올해는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45명 회원들의 45점이 출품됐다. 이우진, 서봉한, 문명호, 강성희, 이지화, 정성복, 정춘수, 임정구, 배경숙, 정흥기, 김현숙, 윤경희, 이경순, 임병남, 이일범, 김은아, 이현숙, 기경신, 정영신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서 만난 강성희 작가는 "매월 1회 야외 스케치를 나가면 밤 아래 펼쳐진 사계를 또렷하게 느낀다. 나만의 감성을 담은 작품을 그릴 수 있다"며 "혹여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도 그대로의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 풍광을 그릴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야외에서는 실내와는 확연하게 붓 터치가 부드럽게 나간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우진의 '풍경'은 다리 아래 계곡의 모습과 평온하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담은 작품이

다. 도심에서 벗어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작가는 자신만의 감성을 투영해 정감있게 구현했다.

김영주의 '적금도의 붉'은 화사하면서도 맑은 풍경을 초점화했다. 화폭에 담긴 여수 적금도는 산뜻하면서도 투명하다. 구름과 뒤섞인 저편 하늘의 무지개빛은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강성희 작가의 '다시 가고 싶은 곳'은 시골의 동구 밖 언덕배기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휘돌아가는 흙길에 피어난 꽃무리는 다정하며 정겹다.

회원들의 작품은 저마다 인간적 정감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인간적인 체취와 감성을 담은 우리 사생회의 그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 '양두환 전국 조각 공모전'



양두환 작가(1941~1974·사진)는 30대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국전 최고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역량있는 예술가였다. 진대 출신으로 조선대 미대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했지만 안타깝게 33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양두환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기리는 조각 공모전이 열린다.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은 오는 '제2회 양두환 전국 조각 공모전'을 연다.

오는 9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1인 3점 이내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실의 작품은 규격 제한이 없으며 실내 작품은 높이 150cm 이내 이면 된다. 심사는 1차 사진 접수(9월 26일 발표)를 대상으로 하며 2차는 실물 작품 심사(10월 10일 발표)로 진행된다.

대상은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이 수여되며 수상작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업 대표는 "이번 전국 조각 공모전은 천재 조각가였던 양두환의 예술세계와 진도를 조각의 중심지로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양두환 조각상 운영위원회 사무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애인의 삶과 권리, 스크린에 담다

오방장애인자립센터 '북구장애인인권영화제'... 오늘 북구청소년수련관

장애인의 삶과 노동, 자립의 현실을 함께 나누는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제3회 북구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다양한 시선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등 영화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 노동과 자립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오전 11시 상영 예정인 첫 작품 '사랑? 사랑, 사랑!'은 하반신 마비라는 현실을 그림으로 이겨내는 이야기를 담는다. 장애인 웹툰 공모전에도 전하는 재야의 성장 과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상영되는 '시실 밖, 나로 살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년을 보낸 주인공 초현이 자립을 결심하며 겪는 현실적인 벽을 진솔하게 그린다.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초현의 이야기는 자립이 곧 권리를 말한다.

또 '우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입니다'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을 통해, 노동이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와 자존의 상징임을 전한다. 뒤이어 상영되는 '탈색·별떡'은 사진작가에서 휠체어 사용자로 삶이 바뀐 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장애 이후의 재도약과 새로운 삶의 발견을 따뜻하게 담아낸다.



'제3회 북구장애인인권영화제' 상영작 '우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입니다' 스틸컷

마지막 순서로 감독 및 출연자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며, 영화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관객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이

번 영화제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물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일상 속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 노경임 씨 대상 수상

"내 생의 고독한 정오에/ 세 번째의 절망을 만났을 때/ 나는 남몰래 바닷가에 갔다.// 아무도 없는 겨울의 빈 바닷가/ 머리 풀고 흐느껴 우는/ 안타까운 파도의 울음소리/ 인간은 왜 비루하고 외로운 것인가."(문병란, '바다가 내게' 중) 시의 언어가 낭송을 통해 생명력을 얻는 무대, 제22회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가 지난 27일 광주 서구문화원 발산아트홀에서 열렸다.

광주 서구청과 서구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광주문인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낭송 애호가들이 모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나눴다.

올해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40명의 참가자들이 저마다 한 편의 시를 낭송하며 감성과 해석이 깃든 무대를 선보였다.

대상은 문병란 시인의 '바다가 내게'를 낭송한 충남 아산 출신 노경임(사진) 씨가 차지했다. 노 씨는 풍부한 감정 전달과 명확한 발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서구청장 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또 하중분씨가 이근배 시인의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를 낭송해 금상을 차지했으며, 공광규 시인의 '얼굴반찬'을 낭송한 김용섭씨와 이용악 시인의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를 낭송한 백성숙 씨가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동상에 나주 출신 김용갑, 광주의 박연식·김민자·공난숙·기미란·나숙희와 광양의 김

정욱, 인천 부평의 왕미희, 충남 서천의 홍경숙, 경기도 의정부의 김기래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 대회가 광주의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중 심사위원장은 "시낭송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감정과 언어의 예술적 교감"이라며 "이번 무대가 시민들이 문학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